

학령 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시간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re Tim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조 교 수 양 심 영*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조 교 수 김 유 경**

Dept. of Family Welfare, Soongeui Women's College
Assistant Professor Yang, Sim-Young
Dept. of Family Welfare, Soongeui Women's College
Assistant Professor Kim, Yoo-K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hild care by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designed to find out how much time mothers spend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62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iding in Seou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nt 6 hours and 50 minutes per day caring for their children during weekdays and 6 hours and 10 minutes on weekend days. This is double the amount of time spent by the average mother with preschool children. Second, mothers spent much more time caring for their disabled children than they do for their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ird, determinants of a mother's time for caring

* 주저자 : 양심영 (yangsy@sewc.ac.kr)

** 교신저자 : 김유경 (ykim70@sewc.ac.kr)

their disabled child during weekdays were mother's employment, the number of children, and gender of the disabled child. On weekend days, determinants of mother's care time were the number of children and husband's help for childrearing.

Key Words :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양육시간(child care Time), 신체적 돌봄(physical care), 비신체적 돌봄(non-physical care)

I. 서론

한국 사회는 현재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사회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관심, 배려와 복지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장애아를 돌보는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장애아 부모는 양육과정에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장애아의 장애 보장에 대한 욕구 등과 관련된 부담을 느낀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며, 부가적인 돌봄 행위에 따르는 시간적 소모와 육체적 피로, 장애아의 특별한 치료비와 교육비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 또한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장애아의 경우 기본적 생존과 발달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일반 아동에 비해 훨씬 심하여 어머니와의 의존관계가 강하며 의존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장애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장애아동에게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 경우 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부부관계나 다른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장애를 갖지 않은 다른 자녀의 이탈행동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김유숙, 2006:104-105). 즉

가족 중에 장애아가 있다는 것은 장애아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문제가 된다.

또한 장애아를 둔 어머니 개인의 시간관리 측면에서 장애아 돌봄에 대한 부담은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생활시간 배분의 불균형에 따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장애아 어머니의 시간이 하루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제로섬(zero-sum)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과도한 시간 사용은 생리적 시간이나 여가시간 등 다른 시간영역을 줄이고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의 생활시간 사용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한편 초기 장애아 가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장애아 개인이나 어머니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나 대처행동, 지원체계,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어졌으며, 장애아의 아버지는 연구에서 제외되거나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만 비추어졌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아동 발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 역할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아버지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최근 들어 장애아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과 참여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장애아동의 아버지는 어

머니와 다르게 장애를 인식하고 반응한다고 한다. 즉 아버지는 장애아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보다 배려, 돌봄이 부족하며, 일반아동의 아버지들에 비해 심리적, 기능적으로 장애아 양육을 더 외면할 뿐 아니라 가사분담 면에서도 책임을 덜 수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Gallager 외(1981)에 의하면 장애아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받는다면 장애아동에 대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아동의 장애를 잘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장윤이, 2008에서 재인용).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 뿐 아니라 어머니들에게도 그들의 가정생활 관련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하고 자녀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결과들을 통해 장애아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부담,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장애아 어머니의 실제 양육시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도 대부분 연구내용의 일부로 평균 양육시간만을 제시하거나 일반 어머니들의 양육시간과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였다(조유희, 2000; 이한우·권명옥, 2005; 남형주, 2007). 또한 장애아어머니의 시간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의 경우에도 실제 돌봄시간이 아닌, 시간제약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이한우·강인연, 2004).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어머니의 양육시간을 양육행동의 특성에 따라 구분함이 없이 전체 양육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시간을 신체적 돌봄시간과 비신체적 돌봄시간으로 구분하여 돌봄 특성에 따른 시간량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령 전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부담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돌봄 관련

시간의 양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간사용이 어머니의 전체적인 생활시간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장애자녀 양육시간과 비장애 자녀 양육시간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장애를 갖지 않은 다른 자녀들이 장애자녀의 형제자매라는 특별한 역할로 인해 기본적인 돌봄의 부족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아 가족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의 개념

본 논문에서는 발달장애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협의적인 발달장애는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로서,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가 포함된다(양심영 외, 2010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주로 발달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발달에 문제가 있어 장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발달장애를 이와 같이 보편적인 의미로 정의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기인 약 20세까지의 발달기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될 수 있다(오

승아·최선경, 2009).

2.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시간과 생활시간 불균형의 문제

한 가정에서 장애아동의 출현은 그 가족들에게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와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전체적인 삶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생활해 오던 일상적인 일과 수행에도 잦은 방해로 받게 된다(Brinker, Seifer & Sameroff, 1994).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일반아동의 부모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한우, 1999; 김일수, 2000). 장애아동의 존재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아동을 양육·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정신적, 신체적 피로, 활동 제한과 여가시간의 부족, 부부 사이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이미선·김경진, 2000). 김정진·최민숙(2003)의 장애영유아 가족의 자원요구도에 대한 조사 결과,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은 자녀를 돌봐줄 시간, 자녀와 함께 할 시간, 내 시간, 가족이 함께 할 시간, 쉼 시간, 배우자와 함께 할 시간, 이야기할 시간 등 시간에 대한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한우·강인연(2004)의 연구에서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생활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녀양육시간이 포함되는 가사노동시간이 많고, 생리적 시간 특히 수면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자신의 생리적 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을 줄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생활시간 배분상의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어머니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물론 가족관계와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한

우 등(2004)은 발달장애 어머니가 느끼는 생활시간 제약이 양육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시간에 대한 대체자원을 모색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어야 하며 이들 가족의 사회문화적 시간 확보를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이 어머니에게 거의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어 장애아 어머니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을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반 근로자가족 부인들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연구(이한우·권명옥, 2005)에서 가사노동시간 중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시간은 자녀돌보기 시간으로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주중 자녀돌보기 시간은 일반 근로자가족 부인들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가족 부인들의 주말 자녀돌보기 시간은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의 도움으로 대부분 줄어드는 경향인 데 비해,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는 주중보다는 시간이 줄었지만 근로자가족 부인의 3배 정도로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비장애아동의 어머니보다 그 역할의 범위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본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장애아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임무 외에도 장애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밀착적인 보호라든가 교육이나 치료 또는 재활을 위한 이동시의 동행과 같은 부수적 활동과 함께, 종종 교사나 의사가 처방한 지시사항을 일상생활 중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보조교사 또는 간호보조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지체아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및 행동상의 특성으로 인해 이들을 보호할 때

경험하는 신체적 피로도에는 매우 극심하여, 정신 지체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정신지체 아동과 거의 하루 종일 함께 다닌다는 경우가 2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성희, 1974).

생활시간은 생리적 시간(필수생활시간)과 노동 시간(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여가생활시간)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자녀 양육과 관련한 시간은 대체로 노동시간 중 가사노동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된다.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자녀양육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시간 영역, 즉 생리적 시간이나 여가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장애아 어머니 및 가족 관련 변인

가사 및 육아시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경제적 효율가설,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 성역할 자원가설 등이 유용성을 인정받아 왔다. 허경옥(1994)에 의하면 이 중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The demand capability perspective)이 부인(어머니)의 가사와 육아시간에 설득력 있는 가설로, 이것의 기본 전제는 가사 및 육아의 수요가 많을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증가하며 이용가능시간이 많을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통 가사 및 육아의 수요는 어린 자녀수나 총 자녀수, 부인의 취업상태 등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소이·최윤지(2002)의 연구에서 육아시간의 결정요인은 어린 자녀 유무로 나타났으며, 송유진(2011)의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돌보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직업(취업 여부)과 교육수준, 연령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투입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어머니의 연령은

자녀의 연령과 관련이 클 것이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들이 취업 여성에 비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투입하는 시간이 길었다.

발달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육아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애아 어머니의 육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이한우 외(2004)에 의하면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생활시간 제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소득과 어머니의 직업이었다. 즉 어머니의 취업시간이 생활시간제약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가져오며, 가계의 총소득이 많다는 것은 자녀 양육을 도와주거나 어머니의 시간을 대체할 자원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생활시간제약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양희(2005)는 직장을 가진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지 않은 어머니보다 장애아의 양육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여 어머니의 취업이 대처행동 등 일부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면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간의 측면에서는 한정된 시간자원의 특성상 어머니의 취업이 절대적 시간의 부족과 이에 따른 역할갈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취업한 어머니의 돌봄시간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 장애자녀 관련 변인

자녀의 장애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 성별, 장애 유형이나 정도 등과 어머니의 양육시간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장애자녀 관련 요인들이 부모의 스트레스나 적응, 양육부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경우 그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Friedrich(1979)는 여아일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라 예측한 반면, Bristol(1979)은 남아가 부모의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하영란 등(1990)에 의하면 장애아가

남아인 어머니가 여아인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신체화로 표출시키려는 경향이 다소 더 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신지체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의 연령에 따른 양육부담에 대해서도 연구에 따라 연구결과의 차이를 보여, Bristol(1979)의 연구에서는 장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루기 힘들어지며 정상아에 비해 능력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부모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영미(1990)의 연구에서는 장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장애 정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자녀의 장애가 심할수록, 그리고 장애가 중복된 경우 돌봄에 대한 요구가 더 크으로써 부모로서는 더 힘들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나영과 윤효열(2000)의 아동의 장애가 심할수록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는 보고를 비롯하여, 유사하게 장애가 심한 아동의 어머니일수록 심리·정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황희희, 2002).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녀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Bristol, 1987; Kazak & Clark, 1986).

장애아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연령 및 성별 같은 요인들이 장애아 어머니의 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장애아의 특성은 양육에 대한 수요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며,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자녀 관련 요인들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오미경, 1990)를 통해 볼 때 장애자녀의 특성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부담이나 양육시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양육 도움 관련 변인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자원으로는 남편을 비롯하여 장애아동의 친·외조부모, 친구, 이웃, 병원이나 학교의 전문가,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장애아 부모모임, 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지지 자원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선경, 2002; 정청자, 1988; Fagan & Schor, 1993; 유혜경, 2009).

특히 가족구조나 기능의 변화에 따라 어머니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온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아버지의 협조와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양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가 자녀는 물론 부부관계, 나아가 가족 전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남편이나 다른 가족구성원, 가까운 친척(친정부모나 형제), 다른 장애아동 부모와 같이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된다는 Thoits(1982)의 견해를 통해서도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Wallander 등(1989)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결혼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Wysocki와 Gavin(2006)의 만성질환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과중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만성질환아동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적응 및 결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성공적인 가족 적응을 도모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참여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스나 양육부담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시간 경감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 3세가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영환(2012)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평일에 44분, 주말에 3시간 41분을 자녀양육에 사용하고 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대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혜경 등(2006:123)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대부분 주말에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 증가된 아버지들의 돌봄 노동은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의 정서활동에만 확연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 전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장애자녀 및 비장애자녀 양육시간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장애자녀의 평일 및 주말 양육시간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서울시 소재 15개소의 어린이집과 24개소의 복지관을 통해 학령 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1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에 걸쳐 250부를 배부하여 206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총 162부를 사용하였다. 생활행동별로 생활시간을 기록하는 부분에 대한 응답자의 부담이 큰 만큼 부실 기재된 설문지가 다소 많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미취학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시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로서 설문지는 어머니와 발달장애자녀 및 배우자,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영역별 생활시간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생활시간은 질문지 형식으로 생활시간 영역별 세부활동을 구분하여 각 행동별로 평일과 주말의 시간을 각각 스스로 기입하게 하되, 1일 전체 시간의 합이 24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정영금(1988)의 연구와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조사의 분류를 토대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시간은 씻기기, 먹이기, 간호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돌봄시간과 공부 봐주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의 비신체적 돌봄시간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신체적 돌봄과 비신체적 돌봄시간의 경

1) 정영금(1988)은 가족돌봄 관련 시간을 신체적 가족돌보기와 비신체적 가족돌보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신체적 가족돌보기에 해당하는 행동으로는 우유와 밥먹이기(등·하교시), 남편과 옷여른 시중(출·퇴근시, 외출시)이 포함되며, 비신체적 가족돌보기에 해당하는 행동으로는 어린자녀와 놀아주기(공부, 놀이지도, 책 읽어주기), 국민학생(초등학교)의 공부보아주기(놀아주기, 대화, 숙제 돌보기, 학교모임에 참석하기), 중·고등학교의 공부보아주기(대화, 상담, 학교모임에 참석하기)를 포함하였다. 한편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족보살피기가 행동분류 9개 대항목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주항목인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에는 신체적 돌보기(씻기기, 먹이기 등), 공부 봐주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미취학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아이 보살피기가 소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2)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연령	20대	3(1.9)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2(1.3)
	30대	117(74.5)		배우자 있음	154(98.7)
	40대	37(23.6)	배우자 연령	30대	78(50.6)
학력	고졸 이하	29(18.2)		40대	74(48.1)
	초대졸/대졸	111(69.9)		50대	2(1.3)
	대학원졸	19(11.9)	배우자 학력	고졸 이하	30(19.9)
취업여부	취업	45(29.6)		초대졸/대졸	100(66.2)
	비취업	107(70.4)		대학원졸	21(13.9)
자녀수	1명	61(38.6)	장애자녀 연령	1-3세	21(13.3)
	2명	81(51.3)		4-5세	51(32.3)
	3명	16(10.1)		6-7세	86(54.4)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23(14.6)	장애자녀 성별	남	102(64.6)
	200-300만원미만	41(26.1)		여	56(35.4)
	300-400만원미만	46(29.3)	자녀장애명	지적장애	50(32.7)
	400-500만원미만	21(13.4)		자폐성장애	47(30.7)
	500만원이상	26(16.6)		기타	56(36.6)

우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 돌봄시간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V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의 대상자인 장애아모의 연령은 30대가 7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로 23.6%를 차지하며, 20대는 1.9%에 그쳐 대부분이 30대-40대에 해당하였다. 이들의 학력은 초대졸/대졸이 69.9%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와 대학원졸이 각각 18.2%, 11.9%로, 학력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70.4%가 취업을 하지 않

은 전업주부였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자녀수는 1명이 29.6%, 2명이 51.3%, 3명이 10.1%로, 두 자녀인 경우가 절반을 조금 넘었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29.3%, 200-300만원 미만이 26.1%로 200-40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이 16.6%, 200만원 미만이 14.6%, 400-500만원 미만이 13.4%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상태는 유배우자인 경우가 전체의 9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우자의 경우 30대와 40대가 각각 50.6%, 4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학력은 대졸이나 대학원졸이 전체의 80.1%로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학령 전 발달장애아 어머니들의 경우 양육 부담과 이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인해 조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조사에 응한 집단의 경우 부부의 학력이

〈표 2〉 장애자녀 및 비장애자녀 양육시간

(단위 : 분)

구 분	장애자녀	비장애자녀	t-value	장애자녀+비장애자녀	
평일	신체적 돌봄	202.9	68.4	8.310***	410.7 ^가
	비신체적 돌봄	102.4	37.0	6.816***	
주말	신체적 돌봄	223.6	77.8	7.426***	
	비신체적 돌봄	45.0	24.4	3.620***	

*** p<.001

가. [(평일 1일 총돌봄시간×5)+(주말 1일 총돌봄시간×2)]/7로 계산함.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으나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장애자녀의 경우 6-7세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54.4%)이며, 다음이 4-5세(32.3%), 1-3세(13.3%)의 순이었다. 장애자녀의 성별은 남아(64.6%)가 여아(35.4%)보다 많았으며, 지적장애인 경우가 32.7%, 자폐성장애가 30.7%이며, 그 외에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2. 장애아 어머니의 장애자녀 및 비장애자녀 양육시간

장애아 어머니의 하루 생활시간 중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평일과 주말, 신체적 돌봄시간과 비신체적 돌봄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별로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자녀돌봄시간으로 평일 약 6시간 50분(장애자녀 돌봄시간은 5시간 5분), 휴일 약 6시간 10분(장애자녀 돌봄시간은 4시간 29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신지체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남형주(2007)의 연구에서 장애자녀 양육시간은 3-6시간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조용학(2000)이 연구에서도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40분 정도로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장애아 어머니들의 평일과 주말의 자녀돌봄시간을 평균하면 1일 평균 약 6시간 41분으로, 200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송유진(2011)의 연구결과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 돌보기 시간이 평균 198.45분, 즉 약 3시간 18분인 것과 비교할 때,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돌봄시간이 2배나 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평일의 신체적, 비신체적 돌봄시간과 주말의 신체적, 비신체적 돌봄시간 모두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모든 유형의 돌봄시간에 있어서 장애자녀 돌봄시간이 비장애자녀 돌봄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자녀의 경우 비장애자녀에 비해 신체적 돌봄에 세 배 정도(평일의 경우 장애자녀 3시간 23분, 비장애자녀 1시간 8분, 주말의 경우 장애자녀 3시간 44분, 비장애자녀 1시간 18분), 비신체적 돌봄에 두 배-세 배 정도(평일의 경우 장애자녀 1시간 42분, 비장애자녀 37분, 주말의 경우 장애자녀 45분, 비장애자녀 24분)의 시간을 쓰고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비장애자녀는 돌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 간 1인당 돌봄시간의 차이는 위에서 제시한 것 이상일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시간이 일반 어머니들에 비해 두 배 가량 많

(표 3) 장애아 어머니의 생활시간 배분

(단위 : 분)

	미취학 장애아 어머니 ^가 (본 연구)	미취학 자녀 어머니 ^나 (송유진, 2011)	20세 이상 기혼 여자 (통계청, 2009)
생리적 시간	561.4	648.0	649
수면시간	410.6	-	468
여가시간	43.1	208.8	268

가 송유진(2011)의 연구에서 평일과 주말이 구분되지 않아 비교를 위해 [(평일 1일 총돌봄시간×5)+(주말 1일 총돌봄시간×2)]/7로 계산함.

나.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하루 전체 시간 중 비율(%)로 제시된 값을 분으로 환산함.

다는 사실은, 시간의 영합(zero-sum)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이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서 다른 시간영역의 시간을 불가피하게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노동시간은 그 속성상 융통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생활시간영역 중 수면시간을 중심으로 한 생리적 시간과 여가시간을 우선적으로 줄이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생리적 시간과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의 생활시간 배분을 일반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활시간 배분과 비교해 보았다. 생리적 시간 중 특히 수면시간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활동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높은 항목이어서 별도로 구분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장애아 어머니들(약 9시간 21분)은 일반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들(약 10시간 48분)에 비해 생리적 시간이 1시간 27분이 적었다. 생리적 시간 중 수면시간의 경우 송유진(2011)의 연구에서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의 20세 이상 기혼 여자 평균시간과 비교해 보았다. 장애아 어머니들의 수면시간은 410.6분(약 6시간 51분)으로, 20세 이상 기혼 여자 평균 수면시간인 468분(7시간 48분)과 비교해 57분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 약 43분으로 일반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들(3시간 29분)에 비해 2시간 46분이나 적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이 과다한 자녀 양육시간의 요구로 인해 자신의 개인적 시간인 생리적 시간이나 여가시간을 불가피하게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가시간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는 데 있어서 시간자료 수집 방법 및 여가활동 항목의 분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여가시간은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나누어 평일과 주말의 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각 항목별 해당되는 활동을 제시하되 세부 여가활동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여가활동 분류와 시간일지법을 적용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자료와 일대일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미취학 장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시간배분은 일반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비교할 때 노동력 소비시간과 노동력 재생산시간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3. 장애자녀 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아 및 장애아모의 특성-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 총 자녀수 및 장애아 성별-과 돌봄 관련 특성-배우자의 양육도움 정도, 양육보조자 수-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장애자녀의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평일 장애자녀 총돌봄시간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

독립변수		B	β
취업여부		-136.778	-.304***
학력	초대졸	45.713	.074
	대졸이상	-.327	-.001
총 자녀수		-107.773	-.263**
장애자녀 성별		-77.411	-.182*
배우자 양육도움 정도		-11.870	.052
양육보조자 수		-21.105	-.083
상수		504.071	
F		4.080***	
R ²		.178	

** p<.01 *** p<.001

☞ 가변인별 기준: 취업여부-비취업, 학력-고졸 이하, 총 자녀수-자녀 1명, 장애자녀 성별-여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평일과 주말의 총돌봄시간으로, 신체적 돌봄시간과 비신체적 돌봄시간을 포함한 돌봄시간의 총합으로 하였다.

1) 평일 장애자녀 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평일 장애자녀의 총돌봄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취업여부와 총 자녀수, 장애자녀 성별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장애자녀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평일의 장애자녀 총돌봄시간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취업여부였으며, 다음으로 총 자녀수, 장애아 성별의 순이었고, 이 모형의 평일 장애자녀 총돌봄시간에 대한 설명력은 17.8%였다(<표 4> 참조).

이한우 외(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직업변인이 생활시간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어머니의 가용시간을 결정하는 주원인이며 이것이 어머니의 생활시간제약에 대한 지각이나 실제 자녀 돌봄시간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용학

(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장애아 형제 수, 부모의 가사시간, 직업활동 시간 등이 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여부(또는 취업시간)나 자녀수는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임이 재확인되었다. 자녀 성별은 선행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양육부담이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는데, 장애자녀가 딸인 경우 돌봄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은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 좀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말 장애자녀 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말에 있어서의 장애자녀 총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총 자녀수와 배우자 양육도움 정도였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11.6%였다(<표 5>).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비해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양육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주말에 있어서 어머니의 장애자녀에 대한 총돌봄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및 실행가능시설에 따라 총자녀수가 많은 경우 육아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전체 육아시

〈표 5〉 주말 장애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

독립변수		B	β
취업여부		-40.809	-.076
학력	초대졸	59.485	.081
	대졸이상	6.163	.012
총 자녀수		-127.422	-.260**
장애자녀 성별		-36.943	-.073
배우자 양육도움 정도		-51.537	-.189*
양육보조자 수		-33.070	-.108
상수		54.289	
F		2.463*	
R ²		.116	

** p<.01 *** p<.001

☞ 가변인별 기준: 취업여부-미취업, 학력-고졸 이하, 총 자녀수-자녀1명, 장애자녀 성별-여

간은 증가하겠으나, 어머니의 생활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자녀에게 할애되는 돌봄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평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양육도움 정도가 어머니의 돌봄시간에 영향이 없었던 데 비해 주말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장을 가진 아버지들이 주로 주말에 자녀양육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양육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장애자녀 돌봄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에 대한 지지와 보살핌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장운이(200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 전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발달장애자녀 및 비장애자녀 돌봄시간을 살펴보고, 장

애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에서의 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학령 전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평일 약 6시간 50분(장애자녀 돌봄시간은 6시간 5분), 휴일 약 6시간 10분(장애자녀 돌봄시간은 4시간 29분)이라는 매우 많은 시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자녀돌봄시간은 미취학자녀를 둔 일반 어머니들의 두 배 정도로 매우 많았다.

둘째, 일반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생활시간 배분과 비교해 볼 때,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은 과도한 자녀 돌봄시간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적 시간인 생리적 시간이나 여가시간을 불가피하게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 배분이 지속될 경우 노동력 소비시간과 노동력 재생산시간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애아 어머니들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모든 유형의 돌봄시간에 있어서 장애자녀 돌봄시간이 비장애자녀 돌봄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비장애자녀가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장애자녀에 대해서는 비장애자녀에 비해 신체적 돌봄에는 세 배 정도, 비신체적 돌봄에는 두 배 정도의 시간을 쓰고 있어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의 돌봄시간 간에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장애자녀의 돌봄시간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평일 장애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영향력은 어머니 취업여부, 총 자녀수, 장애자녀 성별의 순이었다. 주말 장애자녀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 자녀수와 배우자 양육도움 정도였다. 총 자녀수가 많다는 것은 어머니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 자녀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자녀 돌봄시간에 부적 영향을 주게 되며, 어머니의 취업여부도 평일에 있어서 어머니의 절대적 시간 부족을 가져오는 변수로 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양육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아 어머니의 주말 장애아 돌봄시간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령 전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시간은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평균 돌봄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라는 자원의 특성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24시간이 주어지며 유한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간자원의 유한성에 따라 한 가지 행동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영역에 사용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영합(巔合)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돌봄에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생활시간 영역의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한우 외(2005)의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시

간분석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 가족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생리적 시간은 주중에는 67분, 주말에는 2시간 52분이나 적었으며 그 중 특히 수면시간이 부족했고, 사회·문화적 시간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수면시간을 줄여 자녀돌보기 등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나 문화활동 등은 자녀돌봄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거의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활시간 균형을 위해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일반 어머니들에 비해 두 배 가량이나 많다는 사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이 많은 것은 장애아의 특성상 일부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이나 염려 등으로 인해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아 모자관계에서 자극이나 경험의 개입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그 자녀의 발달과정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지만, 부모자녀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된 것은 오히려 아동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많다. 부모들이 장애아동이 신변정리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많은 부분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아동의 자립을 늦출 수 있다(김유숙, 2006:104-105)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자녀 돌봄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시간의 양만으로 개입수준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자녀의 상태나 지적 수준,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도와 유형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총 돌봄시간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나, 장애자녀와 비장애 자녀를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장애자녀에 비해 비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갖지 않은 자녀가 기본적인 돌봄의 부족을 겪거나, 소외감 내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말 장애자녀 돌봄시간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도움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장애아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가사도움이나 양육도움이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낮춰준다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도움 정도가 클수록 어머니의 장애자녀 돌봄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평일 장애자녀 돌봄시간이 비취업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은 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양육도움 정도는 어머니의 장애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가사 및 양육참여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특히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평일 양육참여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아버지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좀 더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의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방한별(2008) 등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고 아버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

한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는데, 장애아를 가진 아버지의 경우 더더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한계점은 시간자료의 수집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시간의 측정을 위해서는 시간일지법과 질문지법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법은 일괄질문법이라고도 하며, 필요에 따라 분류된 행동들로 유형화하여 각각에 소비한 시간의 양을 질문하는 것이다. Robinson과 Bostrom(1994)은 시간일지법과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노동시간을 비교한 연구에서 시간일지법에 비해 질문지법은 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미시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일지법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방법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조사대상인 학령 전 발달장애아 어머니에 대한 접근과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이었으며, 이들의 양육부담과 이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인해 시간일지법을 적용할 경우 조사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커 불가피하게 질문지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수집된 자료 중 하루 시간의 합계가 맞지 않는 자료들을 과감하게 제외시킴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전반적 학력이 높아짐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대표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일지법을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더욱 확보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아 어머니의 생활시간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시간의 균형과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아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시간조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와 문제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아 가족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선경(2002).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2), 7-35.
- 2) 김유숙(2006). 가족상담. 서울 : 학지사.
- 3) 김나영·윤효열(2000). 정신지체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결합력. 대한가정학회지, 38(7), 53-65.
- 4) 김영미(1990). 뇌성마비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외숙·조희금·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서울 : 교문사.
- 6) 김일수(2000).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연구 : 아버지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정진·최민숙(2003).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실행을 위한 가족의 요구와 자원실태 분석 :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8(2), 85-112.
- 8) 남형주(2007). 정신지체아동 부모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원 방안.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방한별·박정윤·김양희(2008).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103-116.
- 10)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4.
- 11) 양심영·원일석·정형원·김성연(2011). 발달장애 가족의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성 모바일 게임 개발.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4(2), 153-160.
- 12)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수행 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오승아·최선경(2009). 13세 이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CALS(생활적용기술 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1(1), 121-153.
- 14) 유소이·최윤지(2002). 성인 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15) 유혜경(2009). 서울 지역 장애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73-88.
- 16) 이미선·김경진(2000).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방안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17) 이영환(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4.
- 18) 이양희(2005). 발달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이한우(1999).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이한우·강인연(2004).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시간제약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3(2), 217-242.
- 21) 이한우·권명옥(2005). 장애아동 어머니의 생활시간분석. 장애정서·행동장애연구, 21(1), 117-138.
- 22) 장윤이(2008).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 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행정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 (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24) 정영금(1988).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정청자(1988). 장애아 가정의 긴장(스트레스)과 적응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조용학(2000). 정신지체아 가족의 양육부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최성희(1974). 정신박약아의 부모들의 문제와 개별 사회사업의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통계청(2009). 국가통계포털 온라인행물 생활시간조사보고서. 20세 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여부 및 취업시간별 평균시간.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pubcode=LS&type=
 - 29) 하영란·신혜용·신정순(1990).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에 나타난 뇌성마비아동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최신 의학, 33(7), 35-41.
 - 30)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31) 황미희(2002). 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과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Brinker R.P., Seifer, R. & Sameroff, A.J.(1994). Relations among maternal stress, cognitive development and early intervention in middle- and low-S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8(4), 463-480.
 - 33) Bristol, M.M.(1979). Maternal coping with autistic children: The effects of child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Chapel Hill.
 - 34) Bristol, M.M.(1987).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or communication disorders: Successful adaptation and the double ABCX model.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7, 496-486.
 - 35) Fagan, J.R. & Schor, D.(1993). Mothers of children with spina bifidal factors related to maternal psychosocial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1), 146-152.
 - 36) Friedrich, W.N.(1979). Predictors of coping behavior of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229.
 - 37) Kazak, A.E. & Clark, M.W.(1986). Stre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myelomeningocele.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8, 220-228.
 - 38) Robinson, J.P. & Bostrom, A.(1994). The overestimated workweek? What time diary measures suggest. *Monthly Labor Review*, August, 11-23.
 - 39) Thoits, D.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 in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40) Wallander, J.L., Varni, J.W., Bahani, L.V., Banis, H.T. & Wilcox, K.T.(1989). Family resources as resistanc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in chronically ill and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4,

- 157-173.
- 41) Wysocki, T. & Gavin, L.(2006). Parental involvement in the management of pediatric chronic diseases: Association with adherence, quality of life, and health statu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1(5), 501-511.

- 투 고 일 : 2013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4월 4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5월 7일